

설날 통행료 무료… 부산시,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민생경제 회복 위해 기업 자금 지원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
고속버스·철도 등 운행횟수 확대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부산시 8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 된다. 또 고속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가 평시 대비 191회 증가되며, 성묘·봉안시설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2개 선별진료소와 2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한다.

부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 취약계층 지원, 교통·수송 대책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23년 진행된 설 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상인연합회 등의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종합대책에는 유료도로 8개소 통행료 전면 무료, 정책금융 지원·소비촉진·물가안정 관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명절 소외계층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 4일간)동안 전면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광안·거가·부산항·을숙대교 등 교량 4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 등 유료도로 총 8곳이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

을 위해 중소기업 8615억원과 소상공인 930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지류형 상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시는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42개 선별진료소와 2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하고,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응급환라인도 운영한다.

월세·관리비 장기체납 가구 등을 파악해 지역사회 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명절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50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끝으로,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급수상황실 운영 및 비상급수 대책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확대

전남도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이 올해 대대적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주민 참여로 마을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해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전남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이미 선정된 2000개 마을에 신규로 1000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총 3000개 으뜸마을에서 인식전환·환경정화·경관개선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김천관광+ 어플’로 스탬프투어 즐기세요”

김천시는 11일부터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발전에 맞춰 ‘김천관광+’ 어플을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김천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김천의 대표 관광명소 20개 장소에서 스탬프 8개 이상을 얻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연중 운영된다.

‘김천관광+’ 어플을 설치하고 투어장소를 방문해 해당 관광지에서 GPS 또는 QR코드 인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플에서 각 관광지의 설명, 길 안내 등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천(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 건설”

부산시, 국토부에 공식 제안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위한 의견
부채·매립식 혼합… 친환경적 방안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부채식과 매립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에서 매립식으로 건설하면 대수심(大水深) 해상 매립과 대규모 발파 등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공항 개항이 불가능하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며, 또 해상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달라는 환경단체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건설방법(매립식, 부유식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기단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안)은 시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국내외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 합동 TF(이하 민관 합동TF)’에서 지난해 12월 제안한 내용이다.

부채식과 매립식이 혼합된 이 방안은 공기단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확장에 용이하며, 수심 등에도 영향이 없다.

시는 이번에 제안한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안)이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관합동 TF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영환 기자 metrobusan3@

해남군, 저탄소 농업 선도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생산, 전남도내 1위

해남군이 전국 최고 농업군으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농업 확산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관내 347ha에서 3개 품목이 인증을 받는데 이어 1대1 농가 컨설팅을 통해 2022년에는 493ha 면적의 저탄소 인증으로 전남도내 1위의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쌀을 포함해 참다래, 단감, 대추, 배추 등 9개 품목을 141농가에서 생산해 전년 대비 품목과 면적 모두 크게 늘어났다.

저탄소 농업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 및 기술로서,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해남군 탄소중립저탄소 농업확산 선도 위해 농업인 교육 모습.

/해남군

해남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 기술 개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소비촉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기업체와 손잡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판매 전략은 젊은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저탄소 인증 쌀 50톤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안동시, 자연환경 활용 ‘사계절 축제’

불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 확충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안동만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품격 사계절 축제를 육성하여 불거리, 줄길거리, 막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확충해 2023년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안동 고유의 문화와 계절별 매력을 담은 사계절 축제로 봄에는 민속축제·봄꽃축제, 여름에는 안동 썸머페스티벌, 가을에는 국제 탈춤페스티벌 2023, 겨울에는 안동 눈빛 축제·안산 얼음축제를 진행해 사계절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안동 탈춤축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던 민속축제를 분리하여 봄의 대표 축제에 개최하고, ‘안동 벚꽃축제’를 안동 강변 벚꽃길 일원에서 개최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남해군,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특별교부세 10억 수상

남해군이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추진계획’은 2022년 7월 27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통한 질 높

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남해군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마케팅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경남 밀양시는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